

조경은 Landscape Architecture인가

우성백*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1972년 '한국조경학회'가 설립된 이래 한국 조경은 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며 성장해 왔다. 수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해 왔으며,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를 낳았다. 2013년에는 조경의 가치, 영역, 대상과 과제를 재정의한 '한국조경현장'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경이 추구하는 직능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건축, 토목, 도시, 임업 등과 명확한 경계가 형성되지 않아, 조경이라는 전문 영역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조경이 제도화된 시기에 'landscape architecture'가 '조경'으로 번역된 과정을 검토한다. 특정 분야의 명칭은 그 분야의 직능과 전문성을 대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용어가 서구에서 전문 영역으로 채택되는 과정과 한국에서 조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의 비교를 통해, 그 사명과 역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제도사에 주목해 온 기존 담론의 틀을 벗어나, 전문 분야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혹은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조경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Landscape architecture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landscape architecture는 1860년대를 전후로 하여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칼베르 보(Calvert Vaux)가 전문 영역(profession) 또는 분야(discipline)을 나타내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했다(Disponzio, 2007; Waldheim, 2014; Eigen, 2014). 주목할 점은 옴스테드와 보에게 landscape architect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주어진 임무가 공원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맨해튼의 155번가 위쪽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계획이었다는 점이다.¹⁾ 그들은 도시뿐 아니라, 대형 도시 공원과 공원 체계, 국가 및 지역 공원, 대학교, 교외 공동체를 계획하고 설계했다. 조경 자체가 독립적인 분야가 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이 조경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경가는 미국의 도시, 가로, 공원, 정원에 원칙을 세우며, 도시미화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Disponzio, 2007: 8).

19세기에 landscape architect(ure)가 탄생한 이래로, 전문영역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다년간의 논쟁은 분야로서의 정체성과 landscape architect의 업무 범위의 간의 갈등을 드러냈다.²⁾ 옴스테드 역시 이 용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architect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새로운 영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조경이 주로 식물 및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만 잘못 여겨지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landscape architect를 수용했다(Eliot, 1902: 204).

일반적으로 전문 영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Mayhew and Ford, 1974: 1-3). 사회적 수요, 개별성·특수성, 전문 영역에 대한 선언, 사회적 공인, 체계적 지식, 제도, 직업 윤리, 집단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전문 영역으로서 landscape architecture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특수한 직능을 통해 체계적 지식과 직업 윤리를 갖추었다. 이후 landscape architect의 선언과 집단의 형성, 이에 대한 사회적 공인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전문 영역으로서 landscape architecture는 그 용어 자체의 의미와 더불어 전문 지식과 직업 윤리, 업무 등에 의해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I. 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조경

한국에 landscape architecture가 도입된 배경에는 국가경제 개발, 산업화, 국토개발 등의 사건과 시대정신이 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 개발을 하는 데 있어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오회영, 2000: 49)을 찾고 있었다. 이에 미국에서 landscape architecture를 전공한 뒤 공직에 있던 오회영 박사를 청와대에 발표자로 섭외했다. 1970년 오회영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landscape architecture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대 건축학과 윤정섭 교수의 자문을 들어 '조경'으로 번역하여 소개한다.³⁾ 이후 1972년 '조경에 관한 세미나'가 청와대에서 주최됐고, 당시 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에 관해서는 조원, 조림, 경관, 조경 등 다양한 용어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조세환, 2008: 32).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 주도 아래 1972년 청와대에 조경·건설담당비서관으로 오회영이 임명된 후,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조경학과의 개설, 한국조경공사의 설립 등 급속도로 조경의 제도화

가 진행된다.

전문 영역으로서 조경이 사회적 인정을 받고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2년 이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조경이라는 용어는 존재했다. 1958년부터 '관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조경을 사용했고(한국조경학회, 1992: 12), 1965년에는 『원예와 조경』이라는 잡지가 창간되었으며, 1967년 6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 6면에는 한국조경연구소의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경 모형, 조경 공사, 조경 전문가 등의 용어가 여러 신문 지면에서 발견된다. 이때의 용례를 살펴보면 원예나 조원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8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입학과에 개설되어 있던 조원학과 조원설계 과목을 폐강하는 대신에 조경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는데, 이 과목명이 현재 분야의 명칭을 조경으로 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문석기, 1983: 3-4)도 있다. 즉, 1970년대 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한 조경이 도입되기 이전에 동일한 형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일종의 동음유어(同音類義語)로서 조경이 이미 이론과 실천의 분야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Landscape architecture는 기존의 직능과는 다른 새로운 분과 영역을 주장하며 탄생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원예, 조원과 관련되어 사용되어 오던 용어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며 제도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조경의 정체성 문제에는 조경의 용례 차이로 인해 조경의 직능과 사회 인식 사이의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이 초기 과정의 난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landscape architecture와 조경 간에는 일대일 대응이 아닌 일대다 대응이 발생했다. Landscape architecture의 번역어로서 조경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조경과 뚜렷한 차별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성장해 온 한국 조경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전문 영역으로서 landscape architecture가 수십 년에 걸쳐 자리 잡은 것에 비해, landscape architecture의 한국적 분야 명으로서의 조경은 그 발생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반성적 토론이 거의 없어 왔다. 한국에서 조경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과정의 초기에는 몇몇 이견이 있었으나, 정부 주도로 빠르게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정체성이 불투명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 지식

과 인력의 부족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단정 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정 분야의 명칭은 그 분야의 직능과 전문성을 대변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조경이라는 용어가 원예와 조원 등과 함께 사용되고 있었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landscape architecture로서 자리 잡기 위한 어떠한 시도가 있었는지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 주 1. 1860년 4월, 맨해튼 155번가 위쪽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계획 책임자로 움스테드와 그의 파트너 칼베르 보가 'landscape architect'로 임명된 것이 미국에서 전문가의 직함으로 landscape architect가 명시된 최초의 기록이다. 이는 조경가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담당 업무가 공원의 설계가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는 점을 뜻한다(Waldheim, 2014). 이제까지는 센트럴파크 조성 책임자였던 움스테드와 보가 1863년 5월 14일 공원 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들의 이름 앞에 landscape architect라고 쓴 것을 첫 기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 주 2.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용어는 지속해서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 비난받았으며, landscape gardening, landscape engineering 등과 경쟁했다. 1899년 미국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 용어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다. 심지어 전문 영역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고 가장 열렬한 대변인이었던 움스테드 역시 이 용어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그와 보는 수차례 이 주제에 관해 논쟁하곤 했다(Disponzio, 2007: 7).
- 주 3. 오휘영은 청와대에서 landscape architecture를 '조경'으로 번역하여 보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70년도 초에 청와대에서 조경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영어 'landscape architecture'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윤정섭 씨에게 의뢰를 했더니 '조경', '조원' 모두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경'이라는 용어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한국조경학회, 1992: 12).

참고문헌

1. 문석기(1983)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10년 발전 약사. 한국조경학회지 11(2): 3-14.
2. 오휘영(2000) 우리나라 근대 조경 태동기의 숨은 이야기(1). 환경과조경 140호.
3. 조세환(2008) 한국 조경의 도입(환경조경재단편, "한국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전"), 파주: 조경 pp. 20-43.
4. 한국조경학회(1992). 현대 한국조경작품집. 파주: 조경.
5. Disponzio, J.(2007) History of the profession. In L. J. Hopper eds., Landscape Architecture Graphic Standards,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5-9.
6. Eigen, E.(2014). Claiming landscape as architect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226-247.
7. Eliot, C. W.(1902) Eliot, Charles Eliot: Landscape Architect, a lover of nature and of his kind, who trained himself for a new profession, practised it happily and through it wrought much good. Boston: Houghton Mifflin.
8. Mayhew, L. B. and P. J. Ford(1974) Reform in Graduate and Professional Education. London: Jossey-Bass Publishers.
9. Waldheim, C.(2014) Landscape as architect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s 34(3): 187-191.